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2. 1. 26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자원외교’ 치적이 치부로... MB정부 최악의
게이트피나” 보도에 대한 입장(헤럴드경제, ‘12.1.26)

1. 기사내용

- ① ‘08.2월 “정부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가 19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홍보” 했으나, “5개 유전개발 사업의 탐사 시추 결과 원유가 없거나 발견되었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”. “투자비용 4,40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음”
- ② “10억 배럴 이상의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발표도 과장된 것”으로, 실제 “MOU에는 ‘자격이 있는 한국기업에 참여 기회를 준다’는 정도의 수준”임
- ③ 수출입은행이 UAE에 100억 달러를 28년 장기로 대출, UAE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아 수은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손실(역마진) 발생
- ④ 이대통령 순방 성과로 포장됐던 ‘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수주권’은 이미 2년 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하기로 결정된 사안
- ⑤ CNK 사건은 정부 등이 출연한 자금 규모가 워낙 큼. 총리실, 외교부, 지경부 공무원, 김은석 대사 친인척 내부정보 빼내 주식거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① ‘08.2월 “정부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가 19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홍보” 했으나, “5개 유전개발 사업의 탐사 시추 결과 원유가 없거나 발견되었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”. “투자비용 4,40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음”
 -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5개 광구*에 대한 탐사 사업으로서,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음
 - * 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, Sangaw South, Hawler
 - 현재까지 Bazian, Qush tappa, Sangaw North, Sangaw South 4개 광구에 대해서는 각각 1공씩 시추한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, Hawler 광구는 시추 준비 중에 있음
 - 수차례 시추작업을 거쳐 상업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탐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, 탐사 시추작업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탐사비 손실만 보고 빈손으로 물러났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임
 - * 영국 브렌트 유전 발견까지 35공을 시추, 동해 가스전 발견도 10여년 소요
- ② “10억 배럴 이상의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발표도 과장된 것”으로, 실제 “MOU에는 ‘자격이 있는 한국기업에 참여 기회를 준다’는 정도의 수준”임
 - ‘11.3월 UAE와 맺은 MOU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며, 우선적 참여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
 - 동 MOU상 한국기업에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생산 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

- 이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
- 아부다비 정부가 유전개발과 관련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 기회를 보장한 사례는 없었음
 - * 현재 UAE에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극소수 국가의 업체만 참여 중
- ③ 수출입은행이 UAE에 100억 달러를 28년 장기로 대출, UAE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아 수은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손실(역마진) 발생
 - 원전 등 해외 플랜트를 수출할 경우 수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, 미국(EX-IM 은행), 일본*(JBIC) 등도 자국 기업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출금융을 실시
 - * '10년 5월, 일본은 베트남 2단계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총사업비의 대부분(85%)을 JBIC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시
 - UAE에 대출되는 수출금융의 대출조건(대출규모, 금리, 원금 상환기관 등)은 수출입은행과 UAE가 협의를 진행중
 - 대규모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달시 대주단의 금융조건은 해당 사업소재 국가의 신용도 뿐만아니라 사업종류, 사업주, 시공 업체 등 해당 사업 참여자의 신용도,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
 - 지금까지 수은이 아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동국가 소재 사업에 수은 조달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,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UAE사업도 중동 지역 기 지원사업과 같은 금융구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음

④ ‘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수주 건’은 이미 2년 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하기로 결정된 사안

- 당초 2009년 5월 삼성물산 등 한국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 발하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카자흐측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 참여 조건을 협의해 왔으나,
 - 사업 조건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,
 - 2010년말에는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협약서가 만료됨으로써, 한국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음
- 2011년 8월 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을 계기로,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‘정부간 협정’ 형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
 - 이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됨은 물론, 향후 카자흐스탄의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
- ⑤ CNK 사건은 정부 등이 출연한 자금 규모가 워낙 큼. 총리실, 외교부, 지경부 공무원, 김은석 대사 친인척 내부정보 빼내 주식거래
 - 정부는 CNK 다이아몬드광산의 조사·탐사를 위한 용자·보조 등 정부자금을 지원한 바 없으며,
 -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 (1.18일)를 통해 ‘지식경제부, 국무총리실 현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’이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음

※ 자료문의

-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2110-5530), 김정두 사무관(2110-5526)
- 원전산업정책과 강경성 과장(2110-5481), 이영호 서기관(2110-3959)
-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박정미 서기관(2110-4898)
- 광물자원팀 전용길 팀장(2110-5448), 김상우 사무관(2110-5435)